

경영학 학습자의 학습개념이 학습접근과 비판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김혜나¹, 손동현^{2*}

¹성결대학교 파이데이아학부 객원교수, ²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The Effects of Conceptions of Learning Management in Study Approach and Critical Thinking

Hannah Kim¹, Dong Hyun Son^{2*}

¹Visiting Professor, Division of Paideia, Sungkyul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Business Scho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요약 본 연구는 경영학에 대한 대학생들의 학습개념을 알아보고 학습개념이 학습접근과 비판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편의 표집한 경영학 전공/부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88명의 응답 분석 결과, 경영학 전공/부전공 학생들에게 학습개념의 유의미한 성차 또는 학년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시험'과 '관점 확장' 학습개념이 심층적 접근에, '시험'이 표층적 접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점 확장' 학습개념이 비판적 사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차원적 사고능력 향상을 목표로 수업 또는 교육과정 개선을 고민하는 교수자 또는 수업설계자들에게 좋은 지침 및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학습개념, 학습접근, 비판적 사고, 경영교육, 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conceptions of learning management and examines the effects on study approach and critical thinking. Undergraduates majoring or minoring in management were gathered through convenient sampling and participated in the online survey. A total of 88 responses were analyzed. The results reveal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gender or grade difference on conceptions of learning management. Conceptions of "test" and "seeing in a new way" are associated with deep study approach, whereas conceptions of 'test' is associated with surface study approach. Conceptions of "seeing in a new wa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critical thinking. The findings may inform redesign of instruction or curriculum especially focusing on improving high-quality thinking skills as the learning outcomes.

Key Words : Conceptions of learning, Study approach, Critical thinking, Management education, Undergraduates

1. 서론

구성주의적 학습이론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과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을 학습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자는 개인의 주

관적인 경험을 근거로 학습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고, 이 신념을 바탕으로 학습목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선택하고 동기를 조절하며 학습을 수행한다. 이러한 학습에 대한 신념은 궁극적으로 학습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1,2,3]. 다시 말하

*This work was supported by Hu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esearch Fund.

*Corresponding Author : Dong Hyun Son(dson@hufs.ac.kr)

Received September 12, 2020

Accepted October 20, 2020

Revised October 6, 2020

Published October 28, 2020

면, 학습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과 축적된 경험을 뜻하는 학습개념은 학습과정 전반에 걸쳐 목표, 행동, 책임, 동기, 전략에 대한 학습자의 선택(학습접근)과 학습 성과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

학습개념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반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한다[4]. 학습자들은 학습 수행 과정에서 하나 이상의 관점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전략을 구사하는 방식으로 학습경험을 구성하게 되고, 이러한 학습 방법과 전략은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5]는 학습개념을 '지식의 확장', '암기', '정보 및 절차 습득', '의미의 추상화', '해석을 통한 현상 이해'로 개념화하였다. 예를 들어, 학습을 '암기'로 개념화하는 학습자의 경우, 주어진 정보를 특정 기간 기억하는 것을 목표로 플래시카드를 활용하여 반복 학습을 하는 등의 학습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효과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졌을 때 주어진 정보를 그대로 기억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주어진 정보를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수정하는 등 기억 이상의 인지적 활동능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후, [6]은 '개인의 성장'으로서의 개념을 추가하여, 개인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역할로 학습개념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학습개념에 대한 선행 연구는 학습개념 간에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이들 간에 상하관계가 존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4]와 [7]은 학습개념 간의 본질적 차이를 강조하면서, 위의 여섯 가지 학습개념 중 '지식 확장', '암기', '정보 및 절차 습득'은 무엇을 학습하느냐가 강조되는 양적 또는 하위 레벨 학습개념으로, '의미의 추상화', '해석을 통한 현상 이해', '개인의 성장'을 어떻게 학습하느냐가 중요한 질적 또는 상위 레벨 학습개념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학습개념의 질적 차이는 개인의 학습에 대한 접근방식으로 연결된다[8]. 학습접근은 학습자의 학습 경험, 전략,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크게 표층적 접근과 심층적 접근으로 나뉜다. 표층적 접근을 수행하는 학습자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쉽게 느끼고 주어진 정보나 절차를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숙달하며 암기 위주의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심층적 접근을 사용하는 학습자는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바탕으로 학습과정을 즐기며 지식과 정보의 통합, 종합, 성찰 활동을 수행한다[9-12].

학습개념이 학습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

구는 질적 학습개념을 갖고 있는 학습자일수록 심층적 근을, 양적 학습개념을 갖고 있는 학습자일수록 표층적 근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다[9]. 학습개념과 학습 성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는 고차원적 학습개념을 갖고 있는 학생일수록 더욱 효율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하여 궁극적으로 더 나은 학습 결과물로 연결되고, 다양한 학습개념을 갖고 있는 학생일수록 높은 학습 성취를 보인다고 보고한다[13]. 또, 학습개념이 인지능력과 일반기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14], 저차원적 학습개념은 고급 학습 성과와 일반기술 함양을 저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5].

학습개념은 학습자의 다양한 배경변인 뿐 아니라 과목이나 과업의 특성, 학습 환경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16]. 현상학적 연구 수행 결과, 경영학에 대한 학습개념은 일반적인 학습개념과 일치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17,18], 이에 따라 [17,18]는 경영학 관련 학습개념으로 '암기', '시험', '적용', '지위 상승', '이해', '관점 확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암기', '시험', '적용', '지위 상승'은 양적 학습개념, 그리고 '이해', '관점 확장'은 질적 학습개념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경영학 학습개념은 다수의 학습자가 마케팅을 '적용'과 '이해'로 인식하고 [19], 회계학 전공 학생들의 학습개념에서 하위 레벨 학습개념의 비중이 크다는 것[20] 등의 연구 결과를 통해 경영학 학습자의 특성 파악에 기여하고 있다. 또, 대학의 학습 환경과 교육과정이 회계학 전공 학생들의 학습개념 확장과 상위인지능력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21]. 이는 학습개념 연구가 고차원적 사고 능력 향상을 위한 교과과정이나 교수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현대의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고차원적 사고능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대학 경영교육의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하는 세계경영대학협회(AACSB: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나 회계교육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Education Standards Board)에서도 대학교육을 통한 고차원적 사고능력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비판적 사고는 모든 고차원적인 문제해결의 기반으로, 사회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는 상황적응적 인지능력의 중심이다[21]. 또한 비판적 사고는 창의성 교육의 핵심으로, 문제에 대한 통

찰력과 문제해결에 유용한 아이디어에 대한 과학적인 판단력을 증진시킨다[22]. 아울러 비판적 사고는 경영학의 중요한 교육목표 중 하나로 손꼽힌다[23]. 따라서 학습개념 연구에서도 학습 성과로 탐구되는 변인을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력 등으로 다양화될 필요가 있겠다.

학습개념 연구는 학습자가 어떻게 학습을 인식하고 경험으로 구성하는 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정 분야 및 학습 환경에 속한 학습자의 특성에 대해 면밀한 파악하도록 돕는다. 학습개념, 학습접근과 학습 성과의 관계에 대한 탐구는 학습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학습 성과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전략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개념 연구는 부족하고, 특히 경영학 분야에서는 극히 드물다. 게다가 21세기 핵심역량 중 하나이자 경영학의 핵심 교육목표인 비판적 사고에 대한 학습개념 관련 국내 연구는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한 수도권 사립대학 학생들이 경영학과 관련하여 채득한 학습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학생 배경변인별로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학습개념이 학습접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학습개념이 비판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경영학 학습개념은 성별, 학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 둘째, 경영학 학습개념은 학습접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셋째, 경영학 학습개념은 비판적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수도권 한 사립대학에서 회계학 수업을 듣는 경영학을 전공/부전공하는 학생들이 편의 추출되었다. 온라인 링크를 통해 설문에 응답한 총 88명의 응답자는 남학생 45명(51%)과 여학생 43명(49%)로 2학년 22명(25%), 3학년 23명(26%), 4학년 43명(49%)로 구성되었다. 모든 응답자는 경영학 전공/부전공자로 평균 나이는 23세로 19~28세에 분포하였다.

2.2 연구도구

경영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개념에 대해 파악하고자 [18]가 개발한 Conceptions of Learning Management Inventory(COLM)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암기(4문항), 시험(4문항), 적용(6문항), 지위 상승(7문항), 이해(5문항), 관점 확장(6문항)의 6가지 요소, 3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이고 예시문항으로는 ‘경영학을 공부하는 것이 향후 승진에 도움을 줄 것이다’, ‘경영학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 삶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이 있다. 응답신뢰도(Cronbach’s α)는 암기 .66, 시험 .68, 적용 .80, 지위 상승 .82, 이해 .76, 관점 확장 .83이었다.

학습에 대한 접근방식 측정을 위해 [24]이 개발한 R-SPQ-2F(Revised two-factor study process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고 심층적 학습접근과 표층적 학습접근이 각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1(이 문항은 나와 전혀 관계없다)부터 5(이 문항은 나를 매우 잘 설명한다)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나는 학문적인 주제에 대해 배우는 것이 재미있는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것만큼이나 즐겁다’, ‘나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 내용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응답신뢰도는 심층접근 .84, 표층접근 .85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25]의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cale(CTDS)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있고,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증거에 입각하여 평가하고 수정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비판적 개방성(7문항)과 자신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입증된 사실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사색 및 회의(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1=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어떤 이슈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나는 대체로 판단을 내리기 전에 내가 가진 정보의 출처를 확인 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응답신뢰도는 .86이었다.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첫째,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둘째, 학습개념의 성과 학년 차를 파악하기 위해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학습

개념이 학습접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개념이 비판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기술통계

학습개념, 학습접근, 비판적 사고에 대한 기술 통계를 Table 1과 같이 분석하였다. 학습개념의 하위개념은 모두 평균 3.0 ('보통이다') 이상 4.0 ('그렇다')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위 상승과 관련한 학습개념이 평균(3.98)이 가장 높고, 시험으로의 학습개념의 평균(3.20)이 가장 낮았다. 학습접근 분석 결과, 심층접근의 평균은 3.26로 '보통이다' 이상, 표층접근의 평균은 2.71로 '그렇지 않다' 이상으로 심층접근의 평균이 표층접근의 평균보다 높았다. 비판적 사고의 평균은 3.70으로 '보통이다' 이상 수준이었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Mean	SD
COLM-Memorizing	3.55	0.70
COLM-Testing	3.20	0.79
COLM-Gaining higher status	3.98	0.64
COLM-Applying	3.90	0.61
COLM-Understanding	3.93	0.61
COLM-Seeing a new way	3.96	0.63
Study Approach-Deep Approach	3.26	6.67
Study Approach-Surface Approach	2.71	7.10
Critical Thinking	3.70	0.58

*COLM(Conceptions of Learning Management)

성과 학년변인의 통제여부 확인을 위해 학습개념, 학습접근, 비판적 사고에 대한 성차와 학년차를 분석하였고, 심층접근에서 성차가 $t=2.15(p<.05)$ 으로 나타나 남학생(평균 3.40)이 여학생(평균 3.10)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심층접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학 학습에서 내적 동기를 바탕으로 의미 확장을 하는 학습 접근을 남학생이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바탕으로 피상적 이해나 암기 위주의 기계적인 학습을 하는 학습접근을 여학생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년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3.2 학습개념의 성과 학년 차이

학습개념에 대한 성차 분석을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Table 2와 같이 남학생과 여학생 간 유의

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암기($t=-.75, p>.05$), 시험($t=.32, p>.05$), 지위 상승($t=1.38, p>.05$), 적용($t=1.09, p>.05$), 이해($t=-.50, p>.05$), 관점 확장($t=1.40, p>.05$). 학습개념에 대한 학년 별 차이 분석을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3와 같이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암기($F=.23, p>.05$), 시험($F=.29, p>.05$), 지위 상승($F=.59, p>.05$), 적용($F=.16, p>.05$), 이해($F=.99, p>.05$), 관점 확장($F=.02, p>.05$).

Table 2. t-test Results Comparing Males and Females on Conceptions of Learning Management.

Gender	Male		Female		t
	M	SD	M	SD	
Memorizing	3.50	.83	3.61	.54	.75
Testing	3.22	.89	3.17	.69	.32
Gaining higher status	4.07	.70	3.89	.56	1.38
Applying	3.97	.67	3.82	.54	1.09
Understanding	3.89	.73	3.96	.45	.50
Seeing in a new way	4.06	.74	3.87	.49	1.40

* $p<.05$, ** $p<.01$, *** $p<.001$

Table 3. ANOVA Results Comparing Academic Years on Conceptions of Learning Management.

	Sophomore		Junior		Senior		F
	M	SD	M	SD	M	SD	
Memorizing	3.47	.85	3.58	.76	3.59	.60	.23
Testing	3.15	.95	3.30	.64	3.16	.79	.29
Gaining higher status	3.89	.76	3.93	.59	4.06	.50	.59
Applying	3.95	.66	3.90	.49	3.86	.65	.16
Understanding	3.77	.81	3.94	.46	3.99	.55	.99
Seeing in a new way	3.98	.76	3.97	.49	3.95	.64	.02

* $p<.05$, ** $p<.01$, *** $p<.001$

3.3 학습접근에 미치는 영향

학습개념이 학습접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학습접근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심층접근에 대해 성차를 통제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이 F 통계값이 6.34($p<.001$)으로 성과 학습개념이 심층접근을 변량의 36.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에 대한 분석 결과, 암기($t=-.68, p>.05$), 시험($t=2.41, p<.05$), 지위 상승($t=-1.41, p>.05$), 적용($t=1.82, p>.05$), 이해($t=.45, p>.05$), 관점 확장($t=2.08, p<.05$)로 시험과 관점 확장의 학습개념이 심층접근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험($\beta=.27$), 관점 확장($\beta=.34$)로 나타나 관점 확장의 학습개념이 시험의 학습개념보다 심층접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층접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이 .001 수준

에서 유의하였으며, F 통계값이 5.14($p < .001$)로 학습개념이 표층접근을 변량의 28.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변인 분석 결과, 암기($t = .07, p > .05$), 시험($t = 3.66, p < .001$), 지위 상승($t = -1.24, p > .05$), 적용($t = -1.62, p > .05$), 이해($t = 1.89, p > .05$), 관점 확장($t = -.27, p > .05$)로 시험으로서의 학습개념이 유일하게 표층접근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Table 4. Regression Analysis of Conceptions of Learning Management on Study Approach

DV	IV	B	β	t	R ²	F
DA	Memorizing	-.69	-.07	-.68	.36	6.34***
	Testing	2.26	.27	2.41*		
	Gaining higher status	-1.7	-.17	-1.41		
	Applying	2.63	.24	1.82		
	Understanding	.63	.06	.45		
	Seeing in a new way	3.52	.34	2.08*		
SA	Memorizing	.08	.01	.07	.28	5.14***
	Testing	3.85	.43	3.66***		
	Gaining higher status	-1.7	-.16	-1.24		
	Applying	-2.63	-.23	-1.62		
	Understanding	2.94	.25	1.89		
	Seeing in a new way	-.52	-.05	-.27		

* $p < .05$, ** $p < .01$, *** $p < .001$

3.4 비판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학습개념이 비판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5와 같이 F 통계값이 12.39($p < .001$)로 학습개념이 비판적 사고 변량의 48.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에 대한 분석 결과, 암기($t = -.53, p > .05$), 시험($t = .89, p > .05$), 지위 상승($t = .25, p > .05$), 적용($t = 1.47, p > .05$), 이해($t = 1.57, p > .05$), 관점 확장($t = 2.78, p < .01$)으로 관점 확장($\beta = .38$)의 학습개념이 비판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Regression Analysis of Conceptions of Learning Management on Critical Thinking

DV	IV	B	β	t	R ²	F
CT	Memorizing	-.04	-.05	-.53	.48	12.39***
	Testing	.07	.09	.89		
	Gaining higher status	.02	.03	.25		
	Applying	.17	.18	1.47		
	Understanding	.17	.18	1.57		
	Seeing in a new way	.36	.40	2.78**		

* $p < .05$, ** $p < .01$, *** $p < .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 한 사립대학의 경영학 전공/부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경영학 학습개념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학습개념과 학습접근, 비판적 사고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와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학습개념에서 성차나 학년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18]와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18]은 대만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시험을 제외한 암기, 지위 상승, 적용, 이해, 관점 확장의 학습개념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고, 이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일반적으로 시험 성적이 낮아,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시험 학습개념을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1학년이 시험을 제외한 모든 개념에서 다른 학년보다 낮은 수준의 학습개념을 사용한다고 보고한 점도 본 연구의 결과와 구분된다. 같은 동양 문화권 국가라 할지라도 큰 차이를 보이는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향후 학습개념 연구에서는 목표 학습자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두 번째, 학습개념이 학습접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시험과 관점 확장의 학습개념이 심층적 접근에, 시험 학습개념이 표층적 접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학습개념과 심층적 접근의 유의미한 관계는 선행연구[9-12]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관점 확장 학습개념이 상위 레벨 경영학 학습개념[18,19]에 속함을 고려했을 때, 이는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시험 학습개념이 심층적 접근과 표층적 접근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특히, 시험 학습개념은 하위 레벨 학습개념[17,18]에 속하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시험 학습개념과 심층적 접근의 유의미한 관계는 선행연구 결과와 대비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 회계학 수업을 수강하는 경영학 전공 또는 부전공생들이 참여하였음을 고려할 때, 회계학 전공 학생들의 학습개념이 주로 하위 레벨에 집중된다는 선행연구 결과로 미루어[20], 학문분야의 특수성과 연관 지어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는 경영학 학습자가 사용하는 학습개념의 경향성이 성별이나 학년보다는 경영학 분야의 세부 전공 또는 흥미 영역별로 매우 다양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19]에서 경영학 전공자로서 마케팅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적용과 이해의 학습개념을 활발히 사용한 반면, 본 연구의 경영학 전공자로서 회계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시험의 학습개념을 활발히 사용하였다. 이는 향후 학습자의 학습개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경영학 하위 분야를 기준으로 세분화되어 수행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회계학 수업을 수강하는 경영학 전공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험 학습개념이 표층적 접근과 심층적 접근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경영학 전공자 중에서도 회계학 학습자들에게 '시험' 학습개념이 표층적 접근과 심층적 접근을 모두 야기하는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이는 학습 성도가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라는 학기 중 평가 뿐 아니라, 졸업 후 국가자격시험으로도 평가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회계학 학습자의 '시험'의 정의가 다른 경영학 세부 분야 학습자보다 포괄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세 번째, 학습개념이 비판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관점 확장 학습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학생일수록, 비판적 사고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는 회계학 전공 3학년 학생들이 2학년 학생들보다 상위 학습개념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학습 환경과 교육과정의 학습개념 확장과 상위인지능력 발달을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비판적 사고 향상을 위해 학과 또는 담당 교수 차원에서 교수-학습 전략이나 학습 환경 변화를 통해 관점 확장의 학습개념을 활용할 기회를 적극 제공하고, 학년별로 차별화하여 점진적 발달이 가능하도록 교수전략을 개발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편의 표집한 특정 지역 소재 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또한 비교적 제한된 표본을 가지고 수행되었기에, 향후 광범위한 표본을 활용해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습개념 연구가 부족한 경영교육 분야에서 학습개념을 토대로 학습자의 특성을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학습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며, 대학 교육의 성과가 현재 사회가 요구하는 고차원적 사고능력의 함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

와 가치가 있다. 후속 연구로 경영학 수업에서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이 학생들의 학습개념과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해볼 수 있겠다.

REFERENCES

- [1] W. Perry Jr. (1999). *Forms of Intellectual and Ethical Development in the College Years: A Scheme*(Jossey-Bass Higher and Adult Education Serie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2] C. Tsai. (2004). Conceptions of learning sci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Taiwan: A phenomenographic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26(14), 1733-1750. DOI : 10.1080/0950069042000230776.
- [3] J. Vermunt & Y. Vermetten. (2004). Patterns in student learning: Relationships between learning strategies, conceptions of learning, and learning orientation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6(4), 359-384. DOI : 10.1007/s10648-004-0005-y.
- [4] F. Marton, G Dall'Alba & E. Beaty. (1993). Conceptions of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9, 227-300.
- [5] R. Saljo. (1979). Learning about learning. *Higher Education*, 8(4), 443-451.
- [6] F. Marton, D. Watkins & C. Tang. (1997). Discontinuities and continuities in the experience of learning: An interview study of high-school students in Hong Kong. *Learning and Instruction*, 7(1), 21-48. DOI : 10.1016/S0959-4752(96)00009-6.
- [7] J. Biggs. (1994). Student learning research and theory: Where do we currently stand? In G. Gibbs (Ed.), *Improving Student Learning: Using Research to Improve Student Learning* (pp. 1-19). England: Oxford Center for Staff Development.
- [8] L. Zheng, Y. Dong, R. Huang, C. Chang & K. Bhagat. (2018). Investigating the interrelationships among conceptions of, approaches to, and self-efficacy in learning sc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40(2), 139-158. DOI : 10.1080/09500693.2017.1402142.
- [9] B. Dart, P. Burnett, N. Purdie, G. Boulton-Lewis, J. Campbell & D. Smith. (2000). Students' conceptions of learning, the classroom environment, and approaches to learning. *The*

-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3(4), 262-270.
DOI : 10.1080/00220670009598715.
- [10] N. Entwistle. (1997). Contrasting perspectives of learning. In F. Marton, D. Hounsell, & N. Entwistle (Eds.), *The Experiences of Learning* (pp. 3-22). Edinburgh: Scottish Academic Press.
- [11] J. Tagg. (2003). *The Learning Paradigm College*. Bolton, MA: Anker Publishing Company.
- [12] T. Laird, R. Shoup, G. Kuh & M. Schwarz. (2008). The effects of discipline on deep approaches to student learning and college outcome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9(6), 469-494.
DOI : 10.1007/s11162-008-9088-5.
- [13] G. Alamdarloo, S. Moradi, & G. Dehshiri.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conceptions of learning and their academic achievement. *Psychology*, 4, 44-49.
DOI : 10.4236/psych.2013.41006.
- [14] R. Edmunds & J. Richardson. (2009). Conceptions of learning, approaches to studying and personal development in UK higher educatio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9(2), 295-309.
DOI : 10.1348/000709908X368866.
- [15] A. Bliuc, R. Ellis, P. Goodyear & L. Piggott. (2010). Learning through face-to-face and online discussions: Associations between students' conceptions, approaches and academic performance in political scienc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41(3), 512-524.
DOI : 10.1111/j.1467-8535.2009.00966.x.
- [16] P. Ramsden. (2003). *Learning to Teach in Higher Education*. Routledge.
- [17] H. Lin & C. Tsai. (2008). Conceptions of learning management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in Taiwan. *Management Learning*, 39(5), 561-578.
DOI : 10.1177/1350507608096041.
- [18] H. Lin & C. Tsai. (2013).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ions of Learning Management inventory. *Studies in Higher Education*, 38(5), 741-757.
DOI : 10.1080/03075079.2011.593621.
- [19] H. Lin & H. Niu. (2011). A phenomenographic approach for exploring learning marketing conceptions of undergraduate students. *Business and Economic Research*, 1(1).
DOI : 10.5296/ber.v1i1.829.
- [20] S. Abhayawansa, M. Bowden & S. Pillay. (2017). Students' conceptions of learning in the context of an accounting degree. *Accounting Education*, 26(3), 213-241.
DOI : 10.1080/09639284.2017.1284003
- [21] Y. J. Kim. (2002). Creativity and critical thinking. *Korean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13(4), 81-90.
- [22] M. G. Seo. (2012). Critical Thinking and Creative Problem Solving.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6(3), 221-247.
- [23] J. Gold, D. Holman & R. Thorpe. (2002). The role of argument analysis and story telling in facilitating critical thinking. *Management Learning*, 33(3), 371-388.
DOI : 10.1177/1350507602333005.
- [24] J. Biggs, D. Kember & D. Leung. (2001). The revised two-factor study process questionnaire: R-SPQ-2F.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1(1), 133-149.
DOI : 10.1348/000709901158433.
- [25] E. Sosu. (2013). Th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validation of 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cale. *Thinking skills and Creativity*, 9, 107-119.
DOI : 10.1016/j.tsc.2012.09.002.

김혜나(Hannah Kim)

[정회원]



- 2004년 12월 : 퍼듀대학교 컴퓨터 그래픽학과 이학사
- 2007년 5월 : 퍼듀대학교 테크놀로지학과 이학석사
- 2013년 5월 : 퍼듀대학교 교육과정 및교육학과 박사(교육공학 전공)
- 2019년 9월 ~ 현재 : 성결대학교 파이데이아학부 객원교수
- 관심분야 : 학습설계 및 평가, 스마트 매체와 교육환경
- E-Mail : edux021@gmail.com

손동현(Dong Hyun Son)

[정회원]



- 2007년 12월 : 퍼듀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 2009년 5월 : 일리노이주립대학교 회계학 석사
- 2014년 5월 : 뉴저지주립대학교 회계학 박사
- 2014년 9월 ~ 2015년 12월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대학 조교수
- 2016년 3월 ~ 현재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 관심분야 : 경영교육, 회계교육
- E-Mail : dson@hufs.ac.kr